



의성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MOU체결

메트로신문 장영우 기자 | 2023-06-30 15:37:44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 사업 위 수탁 업무 협약식 /의성군

의성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농업 분야에서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의성군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선정돼 82ha 규모의 한지형마늘 재배단지에 지능형 스마트 관수시스템, 스마트 농기계 등 스마트 시설·장비를 5G 통신망과 연계한 스마트농업 단지를 사곡면 오상뜰 일대에 조성키 위해 2025년까지 총 245억원(국비 167억, 지방비 78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이 추진하는 노지 스마트농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의성마늘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는 혁신적 방식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 관수기반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의성마늘 경쟁력 강화와 노지 스마트농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의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노지 스마트농업을 위한 관수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성군은 노지 스마트농업 분야의 선도적 역할 강화로 농업 현장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타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하해 발작물 노지 스마트농업 분야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성군은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지 스마트농업의 혁신적인 개념과 기술을 도입해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영우 기자 ycyw@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